

한국고시가의 어울림의 미학

전일환*

<차 례>

1. 들어가기
2. 조화의 미학
 - 2.1 상대의 멋 반대우
 - 2.2 동질의 멋 정대우
 - 2.3 주종의 멋 관대우
3. 마무리

<국문초록>

우리 한국 고시가의 미학적 본질은 조화(調和)의 미학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어울림의 미학은 동양의 음양사상에서 비롯되었다. 음과 양, 이것은 우주의 구성본체를 이루는 기본철학이다. 세상만물은 서로 같은 것이나 다른 것들끼리 짝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묘한 어울림을 만들어간다.

이렇듯 짝을 이루어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것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즉 서로 상반되는 사상(事象)이 짝이 되어 가장 강렬한 조화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반대우(反對偶)와, 같은 것끼리 짝을 이루어 통일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정대우(正對偶), 서로 인과(因果)관계나 주종(主從)관계로 어울림의 미학을 이끌어내는 관대우(串對偶)로 대별할 수가 있다.

첫째, 반대우의 수사는 대우의 미학 중 가장 강렬하고도 산뜻한 조화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끼리 대조시킴으로써 생동감과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올리기 때문이다.

* 전주대학교

둘째, 정대우는 동질적인 짝이나 비슷한 것들이 짝을 이루어 조화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동대우(同對偶)나 유대우(類對偶)를 망라한다. 이러한 수사기교는 가장 자연스럽고 순조로워서 다른 어떤 수사보다 안정감을 주는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관대우는 상하관계의 짝을 이루거나 앞에 것을 뒤에서 상승(相乘)하거나 아니면 인과(因果)관계, 혹은 가정(假定) 등으로 대우의 형식을 빌어서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수사법이다. 전후관계나 인과관계를 이루어서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작품의 미적가치를 높임으로 유수대(流水對)라고도 했다.

송강 정철이나 고산 윤선도는 이러한 대우의 수사기교를 그들 가사나 시가 속에 용해시켜 생상해냄으로써 우리나라 굴지의 시가객이 되었다. 정철의 사미인곡, 속미인곡, 관동별곡이나 윤선도의 산중신곡, 속산중신곡, 어부사시사 등은 이러한 대우의 수사미학을 바탕으로 우리말을 깔고 댕아 아름다운 작품을 생산된 결과다. 이들은 모두 이러한 대우의 수사기교를 통해 우리 국문학을 한 차원 상승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조 시가사상 유명한 양대 시가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조화(調和)의 미학, 음양(陰陽)사상, 정대우(正對偶), 반대우(反對偶), 관대우(串對偶), 유수대(流水對)

1. 들어가기

우리 한국문학의 미학의 본질은 어울림의 미학, 곧 조화의 미학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어울림은 동양의 음양(陰陽)사상에서 비롯되었다. 음과 양, 이것은 우주의 구성본체를 이루는 기본철학¹⁾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낮과 밤, 해와 달, 밀물과 썰물, 남과 여 등 세상 만물의 기본은 서로 다른 것들 끼리 짝을 이루면서 묘한 어울림을 만들어 간다. 우리의 시가문학도

1) 梁鶴馨, 『解譯 周易』, 자유문고, 1994, 7쪽.

이러한 조화의 기본철학으로부터 비롯된다. 하늘을 노래하는가 하면 땅을 노래하고, 태양을 노래하는가 하면 달이나 별을 노래함으로써 아름다움이 배가된다. 이러한 수사는 병문의 수사법인 대우의 기교다.

본디 대우란 구(句)가 서로 평행·대칭되거나 사어(詞語)가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이 병문의 기본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구가 서로 평행 대칭된다는 것은 주어 대 주어, 술어 대 술어, 목적어 대 목적어 등등이 서로 대칭되는 것을 말하고, 사어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칭된다는 것은 명사 대 명사, 동사 대 동사, 형용사 대 형용사, 허사 대 허사 등²⁾이 대우를 이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구가 서로 평행 대칭되거나 형용사나 동사 등이 대우의 수사기교를 이루어 사물형용의 묘함과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짝을 이루어 조화를 이루는 것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가장 강렬한 조화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반대우(反對偶)는 서로 상반되는 사상(事象)이 짝이 되어 어울림의 아름다움을 연출해 내고, 같은 것끼리 짝을 이루어 통일적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정대우(正對偶)나, 비슷한 것끼리 조화를 이루는 유대우(類對偶)와 인과(因果)관계나 주종(主從)관계로 어울림의 미학을 만들어내는 관대우(串對偶)로 대별할 수가 있다.

이들 반대우와 정대우, 관대우의 수사미학이 우리 고시에서 어떻게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지를 미학적 차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2. 조화의 미학 셋

2.1 상대의 몇 반대우

앞에 예거한 대우의 아름다움 중 가장 강렬하고도 산뜻한 미적 조화의

2) 褚斌杰, 『中國古代文体概論』, 北京大出版社, 1998. 170쪽.

아름다움은 전혀 상반된 사상(事象)을 대조시켜 서로가 상대편을 뚜렷하게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얻어내는 반대우(反對偶)의 수사기교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초록색 잔디 위에 핀 빨간 장미의 경우나, 흰색 드레스를 입은 신부 옆에 검은색 턱시도 차림의 신랑이 자리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초록색 잔디는 빨간 장미로 하여 더욱 푸를 수밖에 없고, 빨간 장미는 초록색 잔디로 하여 더욱 붉게 빛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흰색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신랑으로 하여금 더욱 눈부신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있고, 신랑도 신부 때문에 더욱 강렬하고도 산뜻한 미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적 효과는 바로 반대우의 수사기교로부터 출발한다.

반대우의 수사기교는 우리의 생활 속에 익숙하게 남아 있는데, 향유 우리가 즐겨 쓰고 있는 것으로는 ‘녹의홍상(綠衣紅裳)’이나 ‘호의현상(縞衣玄裳)’ 등을 열거할 수가 있다. 녹의홍상은 갓 시집온 새색시를 일컫는 것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말할 때 즐겨 쓰는 말이고, 호의현상은 아름다운 학(鶴)을 일컬을 때 자주 쓰이는 말이다.

이 또한 앞에 제기한 것과 같은 동질적인 의미를 지니면서 아름다움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거둔다. 즉 초록색 저고리는 다홍치마로 하여 더욱 푸르고, 다홍치마는 초록색 저고리로 하여 더욱 붉을 수밖에 없다. 호의현상의 학도 마찬가지다. 검은 주둥이나 날개깃은 입고 있는 흰 옷 때문에 더욱 검게 보여 아름답고, 흰 옷으로 하여 주둥이나 날개깃은 더욱 검게 비추어져 더욱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일종의 보색(補色)대비 효과를 일컫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반대우의 어울림으로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현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훨씬 생동감 넘치게 우리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 호반이나 꽃그늘 아래 벤취에 동성어녕(性)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것보다 오히려 잘 어울리는 남녀가 앉아 있는 것이 그림처럼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세상 만물의 운행도 그렇다. 꽃이 있으니 별과 나비가 있고, 별밤이 있으면 햇빛 찬란한 낮이 있어 더욱 아름

다운 세상이 펼쳐진다. 봄이 있으니 가을이 더욱 영롱하고, 뜨거운 여름이 있으니 눈과 얼음세상 겨울이 더 아름답게 다가드는 법이다.

이렇듯 반대우의 아름다움은 여러 대우의 아름다움 가운데 가장 강렬하고도 산뜻한 어울림의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그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끼리 대조시킴으로써 생동감과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올리기 때문이다. 흰색과 검정색, 초록과 빨강, 낮과 밤, 밀물과 썰물, 남과 여 등 정반대의 사상(事象)끼리 대조를 이루어서 서로 상승(上乘)의 효과를 배가(倍加)시키므로 아름다움이 극대화되는 수사기교로서는 이러한 반대우를 따를만한 게 없다.

반대우(反對偶), 즉 ‘반대’역시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사건을 대비시킨 사대(事對)와 주어 대 주어나 술어 대 술어, 목적어 대 목적어가 서로 상반되면서 미적 극대화를 노린 언대(言對)가 있다. 초나라 사람 종의가 불행히도 적국에 잡혀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고국을 생각하면서 초나라 음악을 연주하였다. 월나라 장석(蔣鴟)은 초나라에서 높은 벼슬에 올라 고향을 그리워하며 월나라 음악을 노래하였는데 종의와 장석은 고향을 그리는 것은 같더라도 처해진 환경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유협(劉鐃)은 반대(反對)³⁾라고 는 것이다. 또 ‘인간(人間) 녹월(六月)이 여기난 삼추(三秋)로다’와 ‘오월장턴(五月長天)의 백설(白雪)은 므사일고’는 사대(事對)로서 회남자(淮南子)의 고사를 이끌어내어 충군과 연군지사(戀君之詞)의 서정을 극대화한 것이다.

추연(鄒衍)이 연나라 혜왕에게 충성을 다했으나, 혜왕은 그러한 마음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추연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자 여름인데도 하늘에서 서리가 내렸다는 고사를 대칭적으로 인용하여 임금에 대한 충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사는 장설(張說)의 옥잠(獄箴)이나 이백의 고풍(古風)에서도 그대로 원용되고 있다. 이백은 회남자의 고사를 옛날 연나라 신하가 통곡하니 오

3) 周振甫, 『文心彫龍 今譯』, 中華書局, 1998, 479쪽.

월에 가을 서리가 내린다(燕臣昔慟哭五月飛秋霜)고 고품에서 읊었는데 송강이 이러한 고사들을 사대우의 기법으로 옮겨 자신의 충절을 상징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즉 인간세상은 유월 달 여름이지만 여기는 깊은 가을이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오월 장천에 흰눈이 내린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임금에 대한 자신의 충절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는 성산의 울창한 송림을 차일(遮日)삼아 바위 길에 앉아 있으니 가을 서리가 내린 듯이 서늘하다는 것이므로 임금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추연에 비유되어 있고, 후자 역시 관동별곡 중 동해 바다 가운데 고래가 내뿜는 물거품이 오월 여름에 백설이 내린 것 같다고 하였으니 자신의 충절을 회남자의 고사를 빌어 상징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대(事對)의 대우법은 반대(反對)의 수사기교와 쌍구대의 기법 속에서 고차원적으로 상승 미화되어 송강의 수사미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경우 사대보다 언대(言對)에서는 그 미학적 멋과 기교가 훨씬 상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즉 ‘나난듯 드는 양이 주인과 엇더한고’, ‘듯 거니 보거니 일마다 선간(仙間)이라’, ‘오르디 못하거니 나려가미 고이할가’, ‘오라며 나리며 헤뜨며 바자니니’ 등은 서술어가 반대우의 기교 속에서 당구대, 쌍구대의 구조를 보이며 송강 특유의 수사미학이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송강가사의 작품 대부분이 앞서 진술한 정대(正對)의 수사기교 못지않게 반대의 수사기법을 사용하여 진술한 정서를 표출함과 동시에 자연경물도 생생하게 묘사하는 미학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반대우란 역시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사건이나 사물을 대비시킨 사대(事對)와 주어 대 주어, 술어 대 술어, 목적어 대 목적어가 서로 상반되면서 미적 극대화를 꾀한 언대(言對)로 대별할 수가 있다.

반대는 반대우(反對偶)의 수사기교를 말하는 것으로 본디 서로 상반되거나 상대가 되는 사물이나 말들을 대비시킴으로써 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가장 신선하고도 산뜻하게 만들어가는 일종의 강조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수사는 독자나 수용자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

게 되어 공감이나 감명을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기교가 된다. 고산의 작품 속에는 정대에 못지않은 반대우의 수사가 많이 동원되고 있다. 역시 이 수사도 병문의 수사기교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고 싶다.

‘고즌 무스일로 쫓겨서 쉬이디고/ 풀은 어이하야 프르는 듯 누르나니’ (오우가-石), ‘더우면 곶꿩고/ 치우면 넙디겨늘’(오우가-松), ‘즐기기도 하려니와/ 근심을 니즐것가’(파연곡), ‘압개예 안개것고/ 뵈피희 해비친다’… ‘밥물은 거의디고/ 남물이 미러온다’, ‘동호(東湖)를 도라보며/ 서호(西湖)로 가자스라…압피히 디나가고/ 뵈피히 나아온다’, ‘우는거시 벽구기/프른거시 버들습가’(어부사시사-春), ‘어선(漁船)이 좁다하나/ 부세(浮世)과 얼다하니’(어부사시사-秋), ‘구름거든후의/ 헐빈치 두텁가다’, ‘여튼겜 고기 들히/ 먼소희 다간나니’, ‘압희는 만경류리(萬頃琉璃)/ 뵈히는 천텃옥산(千疊玉山)…선젠(仙界)가/ 불젠(佛界)가/ 인간(人間)이/ 아니로다’, ‘거구세린(巨口細鱗)을 날그나 몰날그나’(어부사시사-冬). ‘상해런가/ 꾸이런가…옥황(玉皇)은 반기시나/ 군선(群仙)이 꺼리나다’, ‘옥황(玉皇)은 우스시되/ 군선(群仙)이 꾸질나다’(몽턴요), ‘슬프나 즐거오나/ 올타하나 외다하나’(견회요)는 거의 반대우의 수사기교로서 자신의 서정을 절실하게 그려내고 있다.

위에 든 반대의 수사는 어떤 사상(事象)이나 현상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이만큼 분명하고 산뜻한 기교를 찾아내기가 힘들다. 즉 꽃은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 떨어지고,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이 떨어진다. 풀은 따뜻한 봄날 푸른 것 같다가도 금세 가을로 접어들어 노랗게 시드는 자연의 무상성(無常性)을 오우가의 바위와의 대조 속에 노래하고 있으니 이만한 진술은 반대우의 수사 말고는 이렇게 절절하게 감당할 만한 게 없다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꽃은 열흘 이상 붉지 아니하고, 권세란 십 년 이상 가지 않는다(花無十日紅, 權不十年耳)라는 관용구가 연상이 되고, 주희(朱熹)의 연못가 푸른 잔디 아직 봄꿈도 꾸지도 않았는데 벌써 뜰 앞 계단에는 오

4) 전일환, 『옛시 옛노래의 이해』, 제이앤씨, 2008, 101쪽.

동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⁵⁾는 권학시의 시상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수사라고 할 수가 있다. 어찌 보면 한시구보다 고산의 대우적인 수사기교가 오히려 우리의 정서에 그대로 절절이 녹아든다는 생각이 든다.

고산은 어부사시사에서 거의 반대우의 수사기교로서 동적인 박진감을 불어넣어 작품의 생동감을 상승시켰다고 할 수 있다. 즉 동쪽 호수를 돌아보며 서쪽 호수로 가자는 청유형과 앞 포구에 안개가 걷히니 뒷산에 해가 비치며, 밤물이 거의 떨어지니 낮물이 밀려오고, 앞산이 지나가니 뒷산이 다가온다는 반대우의 술어 대비가 동적인 생동감으로 박진감을 불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가로운 어선과 떠들썩한 세상, 구름과 햇빛, 열은 포구와 먼 소(沼), 앞과 뒤, 넓디넓은 유리알 같은 물과 천 겹의 눈 덮인 산, 신선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 혹은 인간의 세상, 옥황(玉皇)과 군선(群仙) 등은 주어의 반대우로서 대비적 효과를 거두어 정조(情調)의 상승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산의 수사기교로 인해 고산의 작품이 다른 작자의 그것보다 국문학적으로 한 차원 상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 측면으로도 조선조의 굴지의 시가객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고산은 송강 정철과 더불어 지금까지도 학자들에 의해 연구됨으로써 수많은 논저들이 쏟아져 나오는 소이연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다.

2.2 동질의 몇 정대우

우리말에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말이 있다. 이 세상에 같은 것처럼 잘 어울리는 것이 또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혈족으로 인한 혈연(血緣)이나, 같은 지역출신의 지연(地緣), 같은 스승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연(學緣) 등 3연을 뿌리로 한 연줄의식을 갖는 것도 그 기저에는 이러한 동류의식이 자리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심성의 밑바닥에서는 유다른 이러한 동질의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그에

5) 朱熹, 勸學詩, “少年易老學難成 一寸光陰不可輕 池塘未覺春草夢 階前梧葉已秋聲”.

따른 병폐도 적지 않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한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온 주요한 동인(動因)이 되었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정대우(正對偶)는 이렇듯 동질적인 짝이나 비슷한 것들이 짝을 이루어 조화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동대우(同對偶)나 유대우(類對偶)를 포괄한다⁶⁾. 이러한 대우는 가장 자연스럽고 순조로워서 다른 어떤 수사기교보다 안정감을 안겨주는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이질적이거나 상반되는 것들은 잘 어울리기도 힘들고, 또 조화를 이루어내기도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소양이 있어야만 하는 까다로움이 있어 조화를 이끌어내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정대우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동질적인 것이거나 유사한 것들을 늘어놓으면 자연스레 스스로 어울려서 조화의 멋을 한껏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자연의 멋도 이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예컨대 푸르다 못해 청색을 띠고 있는 금강산 적송(赤松)군락도 그렇거니와, 가을날 도로 옆에 열병하듯 늘어선 코스모스 길도 푸른 하늘아래 아름답기가 이를 데 없다. 또한 가을날 산사에 가면 상사화(相思花)가 군락을 이루며 지천으로 깔려 있어 오가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이러한 조화의 미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대우의 미학은 사람의 옷차림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윗옷과 아래옷을 다른 색으로 맞추는 일은 그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같은 것끼리는 가장 쉽게 조화를 이루어서 정연한 느낌이나 멋이 우러나게 됨으로 아름답다. 또한 비슷한 색깔의 옷도 쉽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멋스러움을 연출할 수가 있다. 이런 유대우의 자연스러움은 와이셔츠나 블라우스, 또는 넥타이의 경우에도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다.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나와 유사한 것이거나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눈이 번쩍이면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본능이 작용한다. 흔히

6) 졸저, 앞의 책, 44쪽.

들 잘 어울리는 부부는 오누이처럼 닮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바로 이러한 동류의식의 심성이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모르는 이들은 같은 집에, 같은 잠자리, 같은 음식, 같은 생각 등 동거동락(同居同樂)에 의한 후천적 닮음현상을 말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자연적 환경이 같다고 어찌 성장이 끝난 사람들이 닮아질까? 천부당만 부당한 일이다. 사람은 자기와 같거나 비슷한 것들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사성에 의한 동질적 친밀감을 가지게 되고, 동시에 끝없는 희열(喜悅)감을 느끼게 된다. 철이 들어가면서 이제껏 거울에 비춰보았던 익숙해진 자신의 모습과 유사한 얼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갑자기 심장이 뛰고 말할 수 없는 감정에 젖게 되는 게 인간심성의 기본적 바탕이다. 그러므로 잘 조화된 부부는 오누이처럼 닮게 되어 자연스레 어울린다고 하는 게 옳다.

우리 시가문학의 경우도 이러한 조화의 미학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아름다움이 넘쳐난다. 고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나 「산중신곡」 등을 보면 ‘보리밥/ 풋나물’, ‘청약랍(靑筭笠)/ 녹사의(綠蓑衣)’, ‘비 오는데 들에 가랴/ 마히 매양이라’, ‘십심은 하다마는/ 답답은 하다마는’, ‘누룩섞을 탓이러라/ 염매(鹽梅)탈 탓이러라’, ‘백옥경(白玉京)에 올라가니/ 십이루(十二樓) 올라가니’, ‘군선(群仙)이 꺼리나다/ 군선(群仙)이 꾸짖나다’, ‘나무도 아닌 것이 / 풀도 아닌 것이’, ‘긋은비 개단말가/ 흐리던 구름 견단말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등은 같은 사상(事象)이나, 비슷한 것들을 늘어놓아 심사를 절절히 그려내는 수법으로 동질의 조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아름다움을 배가시킨다.

즉 ‘보리밥’과 ‘풋나물’이나 ‘청약랍’이나 ‘녹사의’는 시골 농촌에서 즐기는 음식과 비올 때 머리에 쓰고 등에 걸치는 우의(雨衣)를 이룸하니 유대우요, ‘비’와 ‘마’(장마), ‘많고 많고’와 ‘하고 하고’는 동대우다. ‘누룩’과 ‘염매’는 모두 술이나 음식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매체요, ‘백옥경’과 ‘십이루’, ‘나무’와 ‘풀’, ‘긋은비’와 ‘흐린 구름’도 유대우로서 조화

를 이끌어내어 아름답다는 것이다.

문심조룡에서 유협(劉鋹)은 한조(漢祖)는 한나라의 고조요, 광무(光武)는 한나라의 광무제로서 같은 제왕이며 사상이나 고향도 거의 같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정대우(正對偶) 즉 ‘정대’라고⁷⁾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고조는 고향인 풍읍분유향(豊邑粉榆鄉)에서 죽은 자를 위해 추도하였고, 한나라 광무제는 남양 백수현에서 병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둘의 사건은 사대(事對)로서 서로 동질적이기 때문에 정대의 수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대의 수사는 ‘사대’의 경우 외에 언어대우 즉 언대(言對)에서도 이뤄지는 바, 주어 대 주어, 술어 대 술어, 목적어 대 목적어 등이 서로 같거나 유사한 것들로 대우가 이루어진다.

특히 고산의 시가나 송강가사에서는 ‘사대’보다 ‘언대’에서 ‘정대’의 수사기교가 작품의 미적 감흥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정철의 송강가사도 고산의 시가처럼 동대우나 유대우의 미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원(桃源)은 어디 매요/ 무릉(武陵)이 가깝도다’, ‘마의(麻衣)를 니미차고/ 갈건(葛巾)을 기우 쓰고’, ‘구브락/ 비기락’, ‘만수(萬樹)/ 천림(千林)’, ‘성현(聖賢)도 많거니와/ 호걸(豪傑)도 하도 할사’, ‘머흐도/ 머흘시고’, ‘강호(江湖)에 병이 깊어/ 죽림(竹林)에 누웠더니’, ‘백천동(白川洞) 곁에 두고/ 만폭동(萬瀑洞) 들어가니’, ‘은(銀) 같은 무지개/ 옥(玉) 같은 용의 초리’, ‘헌사도/ 헌사할사’, ‘섯거든/ 솟지마나’, ‘맑거든 조치마나/ 조커든 맑지마나’, ‘이 몸 생겨날 제/ 입을 조차 생기시니’, ‘이 마음/ 이 사랑’, ‘짓나니 한숨이오/ 지나니 눈물이라’, ‘누워 생각하고/ 일어앉아 헤어하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죽조반(粥朝飯)/ 조석(朝夕)메’,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슨 일고’ 등도 동질적인 것과 유사한 것들을 짝지어서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정대우의 미학을 근간으로 송강과 고산은 우리 국문시가를 한층 유려한 경지로 끌어 올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7) 周振甫, 앞의 책, 495쪽.

2.3 주종의 몇 관대우

관대우(串對偶)란 상하관계의 짝을 이루거나, 앞에 것을 뒤에서 상승(相承)하거나 아니면 인과(因果)관계, 혹은 가정(假定) 등으로 대우의 형식을 빌어서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수사법이다. 마치 물 흐르듯 상하나 앞뒤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매끄럽게 묘사됨으로 중국사람 주생아(周生亞)는 유수대(流水對)라 했다. 이처럼 관대란 서로 대칭되는 둘의 품사나 어구가 상하관계의 짝을 이루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의미를 뒤에서 상승(相承)하거나 인과관계, 혹은 가정(假定) 등으로 대우의 형식을 지니는 수사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사는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상하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됨으로 유수대(流水對)⁸⁾라고도 부른다. 예를 들면 백거이(白居易)의 부득고원초송별(賦得古原草送別)이란 오언시 「들불이 꺼지지 않네 봄바람이 불어 일어나니(野火燒不盡 春風吹又生)」의 두 구는 일 년에 한 번씩 시늬와 무성함에서 비롯되어 발전함을 알 수가 있다. 자연 만물가운데 초목이란 시들기 때문에 무성하고, 무성하기 때문에 시들며 반드시 일정한 주기가 되면 이러한 자연현상이 순환하고 반복을 하는 것이므로 자연은 앞에 일어나는 현상을 뒤에서 이어받는 상승(相承)의 법칙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들불이 꺼지지 않네」는 「봄바람이 불어 일어나니」와 전후 인과관계를 이루는데 이는 마치 흐르는 물과 같다는 것이다. 송강가사 가운데는 이러한 관대의 대우법이 많이 원용되어 작품의 미적 가치를 높이고 있지만 양미인곡에 한정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다.

송강가사에는 이러한 관대우의 수사가 많아 우리말 우리글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 있다. 즉 사미인곡 ‘이 몸 생기실제/ 님을 좇아 생기시니’, ‘한생 연분이며/ 하늘모를 일이던가’,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마음의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있어’, ‘짓나니 한숨이오/ 지나니 눈

8) 周生亞, 『古代詩歌修辭』, 語文出版社, 1996, 58쪽. “串對就是構成對偶的上下兩個詞或句子, 在意義上具有相承因果, 假設等種種語法關係的一種對偶形式, 因為這種對偶形同流水, 上下銜接很緊, 所以又叫流水對”.

물이라, ‘염량(炎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 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 낄 일도 하도 할샤’,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헤쳐내니’, ‘황혼에 달이조차/ 베개 밑에 비치니’, ‘느끼 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 니’, ‘님인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난다’, ‘건곤(乾坤)이 폐색(閉塞)하여/ 백 설이 한빛인제’,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그쳐있다’, ‘어와 내 병이야/ 이님 의 탓이로다’, ‘차라리 죽어가서/ 범나비 되오리라’, ‘님이야 날인줄 모르셔 도/ 내님 좇으려 하노라’ 는 대부분 인과관계나 상하나 진후의 관계로 연결됨으로써 마음의 절절함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고산의 시가도 이러한 관대의 수사법을 원용함으로써 아름다움이 배가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황혼(黃昏)이 가까오니/ 물색(物色)이 어 둡난다’, ‘바람 분다 지게 단아라/ 밤 들거다 불 앓아라’, ‘내 벗이 벗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바람소리 맑다하나/ 그칠 적이 하노 매라’, ‘종고도 그칠 뉘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풀은 어찌하여 푸르는듯 누렁나니’, ‘더우면 꽃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술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가’, ‘동호(東湖)를 돌아보며/ 서 호(西湖)로 가자스라’, ‘앞산이 지나가고/ 뒷산이 나아온다’, ‘청약림(靑蕨笠)은 써있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냐’, ‘간밤에 눈 갠 후에/ 경물(景物)이 달랐구나’, ‘앞에는 만경유리(萬頃琉璃)/ 뒤에는 천첩옥산(千疊玉山)’ 은 관대의 수사기교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시어다.

마치 물 흐르듯 문장의 호흡이 매끄러워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시어의 상하관계나 인과관계가 조화롭고 아름다워 한층 작품의 품격이 고조된다. 즉 석양이 지난 후에 산 기운이 더욱 아름답다거나, 황혼이 가까우니 노 을 진 해질 녘의 정경이 더욱 아련해진다고 노래하고 있다. 그것은 서늘 한 밤바람이 불어오니 지게문을 단아야 하고, 밤이 깊으니 불을 끄고 베 계에 의지하여 마음껏 쉬어보자고 노래한 「야심요(夜深謠)」에서도 동일하 게 나타난다.

또한 내 벗은 수석과 송죽인데 동산에 달이 떠오르니 이 다섯의 벗이

얼마나 좋은가를 상하대응의 순리로 엮어냄으로써 고산 특유의 수사기교를 낳고 있다. 이러한 기교는 바람소리가 맑고 아름다우나 그칠 때가 많지만, 사시장철 그칠 줄 모르고 흘러가는 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를 도출해 내고, 꽃은 어찌하여 피면서 쉽게 지고 풀은 왜 푸르다가 쉬이 시드는가로 이어진다. 더구나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이 지는 것은 자연의 엄연한 이법(理法)인데, 소나무는 어찌하여 눈서리를 모르고 저토록 사철 청청한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는 시시때때로 이해득실(利害得失)에 따라 변절하는 인간과 다르게 세한(歲寒)에도 청청하게 서 있는 소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수사를 낳게 되었는데, 이러한 수사는 관대우의 수사기교만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다.

3. 마무리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달리 ‘우리’라는 동류(同類)의식이 우리네 생활 전반에 흐르고 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러한 동질적 요소나 공통소(共通素)가 강하게 작용하여 동아리나 계(契) 같은 형태로 끈끈하게 결속을 다져왔다. 그 근저에는 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비슷하거나 같은 것 등 동질적 요소를 바탕으로 이를 연계하려는 동대우나, 유대우의 동류의식이 내면 깊숙이 자리해 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동안 우리들 마음속에 면면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동대우나 유대우는 정대우(正對偶)의 큰 범주에 포괄이 된다. 우리의 일상에서 볼 수 있듯, 흰색 일색의 옷을 위아래 입을 다거나, 검은 옷을 같은 방식으로 입어서 통일성을 기하는 일종의 조화는 가장 무난한 어울림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학의 정조를 언문일치의 국문으로 아름답게 조각(彫琢)하여 조선조의 국문학 작품의 질량을 높였다. 국문의 조각은 송강 정철이나 고산 윤선도의 작품처럼 사륙병려문의 주요 수사인 대우의 기교가 그 근본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비슷한 것이거나 같은 동류(同類)의 사물을 대조시킴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려낸 정대우(正對偶)와 이와는 대조적인 기법의 반대우(反對偶), 서로 대칭되는 어구나 품사가 상하관계나 상속(相承)관계 또는 인과(因果)관계, 혹은 가정(假定) 등 관대우(串對偶)의 수사로 연군의 정이나, 산중의 생활, 어부의 생애를 형상화하여 조선조 제일의 시가작품을 이룩하였다는 것이다.

첫째, 고산과 송강은 자연물을 정대우(正對偶)의 수사기교를 즐겨 씀으로써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끌어내고 부드럽게 동화시키는 가운데 문장 자체로서 정감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작품의 미적 가치를 배가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약립은 머리에 씌어 있는데, 녹사의는 등에 걸쳤느냐는 것은 둘 다 자연과 일치된 작자의 서정을 같은 자연물로서 대비시킨 것이며, 나무와 풀, 집과 나무, 술과 국, 소리와 마음, 피와 물 등의 주어 대 주어의 대비를 통해서 자신의 서정을 노정한 것이다. 술어의 경우도 무심한 백구는 내가 좇는 건지, 제가 좇는 건지 모르겠다는 몰아(沒我)지경의 경지를 똑같은 술어를 써서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술이 어이하여 좋고, 국은 어찌하여 좋은 것이며, 둘 다 누룩이나 염매를 잘 섞을 탓이라 하였고, 임금을 만나러 가니 온갖 신하들이 꺼리거나 꾸짖는다는 술어의 대우를 씀으로써 정황(情況)을 구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대우의 수사는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어 부드럽게 동화시키고 문장 자체가 정감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작품의 미적 감각을 배가(倍加)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비슷한 것들이나 같은 것들끼리의 대립적 대칭은 가장 자연스러운 어울림을 이루어낸다. 그것은 우리 고시거나 민요에서 가장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첩어(疊語)에서도 찾아낼 수가 있다. 즉 ‘길고 길고’, ‘멀고 멀고’, ‘많고 많고 · 하고 하고’의 부사적 서술어가 그것이다. 이는 아마도 이질적인 것들의 조화보다는 동질적인 것들의 어울림이 훨씬 정감이 있다는 자연발생적인 현상일 것이며, 비슷한 것이거나 같은 사물들의 조화는 다른 것보다 자연스럽고 부드럽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이들은 정대에 못지않을 만큼 반대우(反對偶)의 수사를 많이 사용

하였다. 이는 본디 서로 상반되는 것이나 상대가 되는 사물이나 말들을 대비시킴으로써 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가장 강렬하게 만들어 가는 일종의 강조법이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법은 독자나 수용자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게 되어 독자의 공감이나 감명을 도출해내기가 쉽기 때문에 고산이나 송강은 정대보다 오히려 반대우의 수사를 즐겨 쓴 것으로 보여진다.

송강의 이러한 사대(事對)의 대우법은 반대(反對)의 수사기교와 쌍구대의 기법 속에서 고차원적으로 상승 미화되어 송강의 수사미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경우 사대보다 언대(言對)에서는 그 미학적 멋과 기교가 훨씬 상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서술어가 반대의 기교 속에서 당구대, 쌍구대의 구조를 보이며 송강 특유의 수사미학을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산도 현상이나 사상(事象)을 정반대로 대비시킴으로써 한층 더 분명하고 산뜻한 정조를 복돋우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상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이만큼 분명하고 산뜻한 기교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꽃은 어찌하여 피면서 쉬이 떨어지고,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왜 잎이 떨어지며 밤물 즉 썰물이 지면 낮물-밀물이 밀려온다는 반대우의 술어대비가 동적인 생동감으로 박진감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산중신곡이나 어부사시사에서 거의 반대우의 수사기교를 즐겨 씀으로써 동적인 박진감을 불어넣어 작품의 생동감을 상승시켰다고 할 수가 있다.

셋째, 고산과 송강은 서로 대칭되는 사물이 상하관계의 짝을 이루거나 아니면 이들의 품사나 어구가 서로 짝을 이루는 기교로 서로 상승(相承), 또는 인과관계, 혹은 가정(假定) 등으로 관대우(串對偶)의 수사를 즐겨 씀으로써 작품의 생동감을 불러 일으켰다. 자연 현상 가운데 초목이란 무성하면 시들고 시들면 다시 무성하기 때문에 시드는 것이므로 일정한 주기를 따라 자연은 순환과 반복을 되풀이한다. 이와 같이 자연은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뒤에서 이어받는 상승의 법칙이 존재함으로 관대의 수사는 전후관계를 이루면서 마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더하여준다.

문장의 상하관계가 잘 조화가 되고 인과관계의 호흡이나 주종관계의 조건절과 종속절이 매끄러워 문장의 아름다움이 배가(倍加)하는 이런 수사법을 썼으므로 고산의 작품이 송강의 작품보다 오히려 더 아름답다는 것이다. 즉 세련된 국어의 수사는 송강보다 훨씬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병려문의 대우의 기교도 외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내면에 담아 자신의 정서를 담아내는 것도 참으로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고산의 수사기교로 인해 고산의 작품이 국문학적인 입장에서 한 차원 상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 측면으로도 조선조에서 굴지의 시가객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참고문헌

- 김대행, 『노래와 시의 세계』, 도서출판 역락, 1999.
 김진욱, 『松江 鄭澈文學의 再認識』, 도서출판 역락, 2000.
 梁鶴馨, 『解譯 周易』, 자유문고, 1994, 7쪽.
 褚斌杰, 『中國古代文體概論』, 北京大出版社, 1998, 170쪽.
 전일환, 『옛시 옛노래의 이해』, 제이앤씨, 2008, 44쪽/101쪽.
 ———, 『우리 옛가사문학의 이해』, 제이앤씨, 2008.
 周生亞, 『古代詩歌修辭』, 語文出版社, 1996, 58쪽.
 周振甫, 『文心彫龍 今譯』, 中華書局, 1998, 479쪽/495쪽.

투고일 : 2009년 12월 29일, 심사 : 2010년 1월 11일~25일, 게재확정 : 2010년 2월 1일

<Abstract>

Aesthetic Harmony in Korean Old Siga

Jeon, Ihl-hwan

We can find out the essence of aesthetic of Siga(詩歌), a Korean poem, which is the aesthetic harmony. This aesthetic of harmony rises yang-in thought(陰陽思想) of the Oriental. They become togetherness making pairs with same or other differences, and are making a pretty in a harmony.

They divide into two kind. One is the facing things which the dual relation between a material or a thing, the other is the facing discourse which is the subject to the subject and the predicate to the predicate. The rhetoric aesthetic making such harmonies divide into three kind. First is antithesis of opposition(反對偶) making harmony in the most intense. Second is antithesis of same or similar(正對偶)producing being easy and smooth pretty. The final is antithe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use and effect or master and servant(串對偶) producing orderly systematic pretty.

Songgang Jeong Cheol or Gosan Yun Sundo became the foremost writers of Gasa or poem in Korea using the rhetoric aesthetic in their works. They became the most famous poets using Korean words and languages with the aesthetic skills in Jeong Cheol's "Samiingok", "Sokmiingok", "Gwandongbyulgok", "Jangjinzusa", and "Huminga", and Yun Sundo's "Sanjungsingok", "Eobusasisa" etc.

Key words : Aesthetic harmony(調和의 美學), Yang-in thought(陰陽思想), Rhetoric aesthetics(修辭美學), antithesis of opposition(反對偶), antithesis of same or similar(正對偶), antithe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use and effect or master and servant(串對偶)